

## 대구현대미술제 - 미술제를 만나다

Interviewee 이강소 화가

장소 서면인터뷰

매체명 달성문화재단

취재일시 2016년 6월

### 1. 현재 활동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강소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미술계의 현장들을 정신없이 다니며 작업을 하며, 동시대 미술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사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 그 동안 여러 분야의 작업 경험을 했습니다.

회화, 조각, 설치, 행위 예술, 사진, 동영상 등, 현대미술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저의 소견이 담긴 작업을 제안해 보아 왔습니다. 이런 젊은 시절을 보낸 이후, 지금은 저와 별로 연고도 없는 경기도 안성시의 변두리 야산의 깊은 산속에 서 혼자 작업에만 전념한 시간이 벌써 22년이 넘었습니다. 노년이 되어선지 의욕에 찬 생각들은 멀어지고, 그저 저를 둘러싼 주변과 제가 일체가 되어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 2. 대구현대미술제' 기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970년대 활동(상세연도, 날짜 등)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 미술은 아마도 저희 세대를 기점으로 근대와 현대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동란으로 서구인들과 직접적인 교류를 국내에 서 경험을 했고, 서구 미술계의 정보들도 노력에 따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세대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일본을 통해 근대 서구미술의 영향을 받은 세대와는 차이가 납니다. 물론 서구적인 교육 체계에서 교육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현대를 사는 저희 세대들이 국제적인 미술문화의 흐름 속에서 미아가 되는 것을 바라는 젊은 예술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에서인지 1970년 전후로 현대미술을 지향하는 그룹 활동이 왕성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오리진 그룹, 무한대 그룹, S.T. 그룹, A.G.그룹, 신체제 그룹 등, 열렬하게 현대미술을 연구하고 작업을 발표하는 활동 들이었습니다. 저도 신체제 그룹을 결성하고, 동시에 A.G. 그룹 활동에도 동참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들 젊은 예술가들에게 좀 더 과감한 미술계의 혁신을 바라는 공감, 혹은 열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계의 주류를 이루어 왔던 서구 근대미술의 흐름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 서울과 대구를 다니며 생활하던 저는 제 일을 도우려 대구에 왔던 후배 작가 장성진씨와 함께 대구 백화점 화랑 후원으로 "한국 현대작가 초대전"을 기획 전시를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랫동안 조선일보사에서 구상, 추상 혹은 앵포르멜 등의 작가들을 초대해 온 "한국 현대 작가 초대전이 있어 왔습니다. 대구에서는 세대를 바꾸어서 신세대 현대미술 작가들을 초대했습니

다.

다음 해 1974년에는 “한국 실험 작가전” (3월6일~11일, 대구 백화점 화랑)을 당시 대구에서 현대 미술을 열심히 작업하던 이향미, 이명미, 김기동 등과 함께 서울과 부산 작가들을 초대하여 (27인의 작가)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현대작가 협회를 창립(23인)하고, 창립 전 (1975.7.16.~21. 대구백화점 화랑.)을 개최했습니다. 전시는 대규모 미술운동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같은 해 가을 “74’ 대구 현대 미술제”를 계명대학 미술관 (전시:1974.10.13.~19.참여작가:67인.심포지엄:10.13. A.M. 10:00)에서 개최했습니다. 평면회화, 설치작업, 사진 등의 작업들이었습니다. 이 전시에서 특기할 것은 현대 미술을 지향하는(당시 전국의 작가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 참여 작가들은 서울이나 지방, 출신학교, 민중미술이나 소위 현대미술 등 모든 작가들이 열정으로 함께 현지 참여와 소통, 단결의지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1975년 서울 현대 미술제(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 1975. 12. 16.~22.), 1976년 부산 현대 미술제(부산 시민 회관 전시실, 1976.12.14.~20.), 1976년 광주 현대 미술 제(전일 미술관, 광주. 1976.9.15.~21.), 1978년 전북 현대 미술제(전북 예술회관, 전주. 1978.10.14.~20.로 이어 졌습니다.

#### **제2회대구 현대 미술제(계명대학교미술관,1975.11.2.~8. 78인 참여)**

**제3회 대구 현대 미술제(대구 시민회관 전시장, 1977.4.30.~5.8. 세미나: 4.30. P.M. 3~6. 해프닝 및 이벤트 달성군 강정 낙동강 백사장: 1977.5.1. A.M. 11:00 ~ P.M. 2:00. 미술제 참여 작가: 195인),**

**제4회 대구 현대 미술제(대구 시민회관 전시실: 평면, 설치, VIDEO & FILM 작업, 1978.9.23.~30. EVENT, 기타 방법의 작업: 달성군 가창면 냉천 천변, 1978. 9.24. (일요일), A.M.: 10:00, P.M. :2:00, 미술제 참여 작가: 205인).**

**제5회 대구 현대 미술제(부제 “내일을 모색하는 작가들”, 장소: 대구 시내 9개의 화랑, 1979.**

**7.7.~13., Event Festival: 달성군 강정 낙동강 백사장, 1979. 7. 8. A.M. 10:00~P.M. 2:00, 미술제 참여 작가: 한국 작가 50인, 일본 초대작가 15인)**

저는 70년대의 이런 전국의 미술제를 참여하고 1981년 대구 판화가 협회 창립과 전시에 동참한 뒤, 미술운동은 그만 두고 대구를 떠났습니다.

### **3. 1970년대 당시 시대적 분위기와 미술을 바라보는 대중의 관점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한국은 아직 빈한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정치 상황도 어려웠고. 그러나 젊은 작가들은 오히려 자유로운 작업에 열중했고 또 어떤 작가들은 정치적 반항의 작업으로 젊음을 불태웠죠.

현대미술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처음은 의아스러워하고 장난기 어린 시선으로 보는 듯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친밀한 호기심, 그리고 점점 더 신중한 태도로 변해 가는 듯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70년대의 전국적인 현대미술운동이 빠른 속도로 미술대학의 학생들에게 전이되어 근대미술 성향의 미술대학이 현대미술로 자연스럽게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미술사상에 이런 예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대미술은 선진국들과 격차가 없을 뿐 아니라 아마도 차츰 선도국의 위치로 올라설 것이라 확신합니다.

**4. '대구현대미술제'가 현 시대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술제에 임했던 선생님의 마음가짐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셨는지요?**

저뿐만이 아니라, 당시 비슷한 처지의 우리 세대들은 거의 모두가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이렇게 소박한 결집이 가능했습니다.

조선조의 회화의 경향도 거의 많은 부분이 중국대륙의 경향을 시대별로 수시로 영향을 받아 한국의 정신사가 반영되는 형식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대미술도 세계미술과 소통할 수 있으면 서도 새로운 세기에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의 정신사가 반영되는 한국 현대미술의 독특한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이 외국 가서 배우고 영향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의 것은 자신의 영혼 가운데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미술 운동은 이러한 잠재력을 집단적으로 일깨우고 키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문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5. 2012년 '강정대구현대미술제'가 다시 개최되며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작품이 강정에 세워질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요?**

과거의 강정 물줄기와 백사장은 천하 절경이었습니다. 일본의 작가들과 화랑주가 그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감동으로 젖어 감탄하던 일이 기억납니다.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황하 종류에 조금 있을 뿐, 대단한 경치였죠.

5년 전 느닷없이 제가 "강정 대구 현대 미술제"에 초대를 받아 참여를 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경치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저희들이 미술제 행사로 여러 번 강정에서 작업을 했지만 33여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미술제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6. 1970년대의 대구현대미술제가 없었다면 현재 '강정대구현대미술제' 개최도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요? 사회적인 분위기, 예술가들의 관점 그리고 선생님의 개인의 관점을 과거와 현재로 나뉘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는 70년대 전후의 미술을 다시 회고하고 되새겨서 현대미술의 새로운 방향 모색에 도움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현대미술을 다시 들여보고자 하는 관심과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흐름은 현대문명의 불가피한 전환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구 근대문명과 판이하게 달랐던 사상사나 정신사에 있습니다. 극도로 개별화로 치달은 서구의 기계론적 근대정신의 나아갈 길은 조화를 으뜸으로 살아온 유기론적인 동

아시아의 정신사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올 8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관에서는 개관 30주년을 맞아 전체 미술관을 70년대 미술과 그 이후를 다루는 대규모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설치, 행위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집니다.

9월에는 부산비엔날레에서는 아시아아방가르드 전을 7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중요한 미술이론가, 작가들은 모두, 대구 현대미술제가 과거 한국 현대미술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최근에도 그 경과를 자세히 알아 중국의 젊은 작가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달성군이 대구문화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는 중심의 위상에서 이 “강정 대구 현대 미술제”를 올해로 5회를 맞는다는 것은 분명히 차세대의 한국인의 정신을 가지신 분들이 진행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 **7. ‘대구현대미술제’ 혹은 ‘강정대구현대미술제’를 진행하며 잊지 못하는 순간이 있는지요?**

“대구 현대 미술제”나 “강정 대구 현대 미술제”는 ‘하면 한다’는 지역민들의 독특한 대륙적인 정신에서 가능하지 않은가 합니다. 내가 좀 못해도 타인들을 위해서 괜찮다면, 하면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모여서 작업하다 보면, 괜찮은 것이죠. 힘든 적이 한두 번 아니었지만, 그 이상 멋있고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 **8. 올해로 ‘강정대구현대미술제’가 5회째를 맞이합니다. ‘현대’라는 이름에 걸맞은 미술제가 되기 위해 지향해 가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3월에 일본 문부성 후원과 다마 미술대학 주최로 1970년 전후의 일본 “모노하”미술에 관한 심포지엄에 발제자로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노하 미술”의 세계적인 업그레이드 운동의 일환이죠.

거기에는 옛날 강정 이벤트에도 참여한 교수도 있었고, 많은 작가들이 “강정 대구 현대 미술제”가 계속해서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든지 초대를 해주면 영광으로 참여하겠다고들 했습니다.

계속되는 미술제에는 작가들과 그 경향들도 항상 변화합니다. 매년 대구 작가들과 함께 범국가적으로 새로운 면모의 작가와 작업들을 규모가 작아도 알차게 선보인다면, 이 미술제의 역사와 더불어 엄청난 대구 달성의 이 미지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달성의 명성과 관광은 이 소규모 예산으로 엄청난 고급문화의 자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9. 달성문화재단 소식지가 창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 소식지를 읽는 구독자와 미술을 사랑하는 대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라날 때 대구는 교육의 도시라고 자랑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익히 들었습니다. 나이

가 조금 들면서 사실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대도시 가운데 가장 어렵고 낙후된 도시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에 울산에 간 일이 있습니다. 강변에 축구장이 나란히 여섯 개나 있었습니다. 부러웠죠. 신체와 정신건강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술관은 몇 년째 예정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미술관은 그림과 조각 등을 늘어 놓는 곳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첨단 기술을 끊임없이 갈아치우면서 미래에 걸 맞는 정신을 가늠해 보는 창조의 전당입니다. 현대미술은 현대의 과학, 철학 등 모든 분야와 관련하는 영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대중과 어린이들 모두가 갖가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항상 곁에 함께 해야 할 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전 근대적인 구조의 도시 구조에서, 중공업 중심의 도시에서 대형 산업이 사양사업으로 돌변했을 때 시민들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이 갑자기 돌변한 도시에서 어떻게 남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대구는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소를 팔아서 아이들을 유학 보내던 시절이 아닙니다.

문명의 대 전환기에 우리와 아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신을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석학들과 예술가들이 지금 그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예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6. 25. 진명헌에서.

이 강소